

-는 중이다

진행 — ~하는 중이다, 한창 ~하고 있다

-고 있다와 비슷하지만 범위가 더 좁습니다. 동작을 한창 진행 중이어서 쉽게 멈출 수 없는 것으로 나타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동작 동사	-는 중이다	회의하다 → 회의하는 중이에요
르로 끝남	르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중이에요
명사와 함께	명사 + 중이다	회의 중이에요
과거	-는 중이었다	자는 중이었어요
계속되는 상태	-고 있다 사용	한국에 살고 있어요
형용사	불가능	좋은 중이라는 없는 표현

■ 언제 쓰나요

동사 어간에 -는을 붙이고 뒤에 중이라는 씁니다. 르로 끝나는 어간은 르 이 탈락합니다: 만들다 → 만드는 중이에요. 명사에는 중이다가 바로 붙습니다: 회의 중, 공사 중, 통화 중.

中은 ‘가운데’라는 뜻이며, 이 말도 그 뜻을 그대로 지닙니다. 동작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, 지금 그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때 잘 어울립니다: 지금 회의하는 중이라서 나중에 전화드릴게요.

이 표현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 동작 동사에 씁니다. 계속되는 상태에는 쓸 수 없습니다. 한국에 사는 중이에요는 틀린 표현인데, 사는 것에는 거쳐 가는 중간 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. 살고 있어요를 쓰세요.

같은 이유로 형용사에도 쓸 수 없습니다.

■ 예문

- 1 지금 회의하는 중이라서 나중에 전화드릴게요.
- 2 저녁을 만드는 중이니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
- 3 보고서를 쓰는 중이에요.
- 4 그 문제는 아직 검토하는 중입니다.
- 5 전화했을 때 밥을 먹는 중이었어요.
- 6 지금 통화 중이신 것 같아요.

■ 비교

-고 있다
-고 있다는 오래 이어지는 상황을 포함해 진행 중인 모든 동작에 씁니다. -는 중이라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동작이어야 합니다.
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. (계속 진행 중인 일) / 지금 수업하는 중이에요. (지금 한창 수업 중)

-는 동안
-는 동안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기간을 나타내고, -는 중이라는 동작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말하는 서술어입니다.
회의하는 동안 전화가 왔어요. (회의 도중에) / 회의하는 중이에요. (지금 회의 중)

명사 + 중
안내문이나 서비스 표현에서 매우 흔합니다: 공사 중, 준비 중, 사용 중. 어휘로 익혀 두면 효율적입니다.
공사 중입니다. / 지금 통화 중이에요.

■ 주의

- ✗ 저녁을 만들는 중이에요.
○ 저녁을 만드는 중이에요.
르로 끝나는 어간은 관형형 체계 전반에서처럼 -는 앞에서 르이 탈락합니다.
- ✗ 저는 서울에 사는 중이에요.
○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.
사는 것에는 ‘중간’이 없습니다. 중이다는 시작과 끝이 있는 동작이 필요합니다.
- ✗ 요즘 날씨가 좋은 중이에요.
○ 요즘 날씨가 좋아지고 있어요.
형용사에는 이 어미를 쓸 수 없습니다.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상태는 -아/어지다와 -고 있다를 함께 쓰세요.